

2017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4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를 주제로 한 수업 장면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대인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화면에 준비한 학생의 대화를 같이 봅시다.

(종례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며)

성현: 너 내일 뭐 해? 집도 가까운데 농구할래?

인우: 나 약속이 있어.

성현: 약속? 무슨 약속?

인우: 음, 누나랑 매형이 집에 와서 가족끼리 밥 먹기로 했어.

성현: 결혼한 누나가 있었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네. 왜 말 안 했어?

인우: 그걸 굳이 말해야 돼? 너랑 만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성현: 난 우리 집 사정이며 내 고민까지 너한테 다 털어 놓았는데... 일주일이면 친해지기에 충분한 시간 아냐? [A]

인우: 충분하다고? 사실 나는 아직도 많이 부담스러워.

둘의 대화를 보니, 성현이와 인우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 사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A]를 보니, 선생님은 이 두 친구가 계속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대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들의 대답)

여러분이 말했듯이, 성현이는 인우에게 집안 사정과 자신의 고민까지 서슴없이 밝힌 데 비해, 인우는 성현이가 개인 사정과 고민을 말해 준 것에 대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합니다.

대인 관계 의사소통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으)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인 관계 초기에 서로를 알아 가기 위해 상호 작용을 합니다. 주로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회적 자아를 드러내다가 관계가 발전할수록 점진적으로 개인의 감정, 가치관, 내재된 두려움과 같은 개인적 자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다시 이 대화를 살펴볼까요? 성현이와 인우는 자아에 대한 정보의 양과 수준 그리고 그 정보를 드러내는 (㉡)이/가 상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2. 다음은 읽기 텍스트 선정을 위한 대화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김 교사: 선생님, 제가 이번 학기 방과 후 수업에서 읽기 부진 학생 2명의 지도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적합한 읽기 텍스트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 좀 막막하네요.

박 교사: 저도 읽기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읽기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늘 고민거리입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수업하실 학생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짐작하세요?

김 교사: 저의 판단으로는 대략 또래 학생들보다 2년 정도 읽기 발달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 어휘 수준, 문장 복잡도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이독성을 계산해서 특정 학년에 맞는 텍스트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 방법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박 교사: 이독성 공식에만 의존하면 (㉠)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김 교사: 아, 독자의 배경 지식과 같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박 교사: 독자의 배경 지식도 중요한 요인이죠. 독자 요인에서는 그런 인지적인 특성 이외에 흥미나 읽기 효능감 같은 정의적인 특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상황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독서 환경은 어떠한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김 교사: 독서 환경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독서 환경 중에서도 (㉡)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의 대화 빈도, 부모의 독서 행위, 가정 내 읽을거리의 양과 질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3. 다음은 ‘작문에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어 교사 협의회 회의록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수석 교사: 오늘은 ‘작문에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작문 수업 방법론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김 교사: 의미는 당연히 글에 있지요. 대개의 일상 산문의 경우,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난 글이 좋은 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어법을 준수하고, 수사적 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수석 교사: 네, 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사: 저는 수사적 원리가 보편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는 구성주의 또는 인지주의 작문 이론가들이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 (㉠) (이)나, 김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담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됩니다. 그런데 담화 공동체마다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지식, 신념, 감수성이 다르고 이것이 글 구성 전략, 표현 전략의 차이를 낳습니다. 즉, 담화 관습은 공동체마다 다릅니다.

수석 교사: 담화 관습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의 차이로 이해 되는데요. 그럼, 이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작문 지도를 하십니까?

이 교사: 저는 작문 수업에서 학습자 간 대화를 촉진하는 협동 작문 활동이나 동료 평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과 글쓰기 방식을 익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석 교사: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본 바에 따르면, 최 선생님께서도 작문 교육에서 대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 선생님께서도 이 선생님의 생각과 같습니까?

최 교사: 제가 수업에서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담화 공동체의 글쓰기 방식을 익히는 것보다 작문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들과의 대화적 교섭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작문 과정에서 끊임없이 (㉡) 을/를 의식합니다. 여기서 공저자의 개념이 생겨난 것이지요.

수석 교사: 그렇군요. 각자 작문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작문 수업 층위로 내려오면 서로의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다음은 “중세 국어 선어말 어미 ‘-오/우’의 기능을 안다.”를 학습 목표로 하여 진행한 수업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교사: 오늘은 중세 국어 선어말 어미 ‘-오/우’의 기능을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의 중세 국어 문장들을 한번 볼까요?

(1) 내 이를 爲^하야 새로 스물여덟 字를 밍⁷노니
 (2) a. 優⁷墳王이 밍⁷론 金像을 象에 신⁷즈바 가더니
 b. 王이 罪 지슨 각시를 그 모던 노미그에 보내야

교사: (1)과 (2)를 통해서 ‘-오/우’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어와 화자 자신임을 나타내거나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기능이에요. (1)의 ‘밍⁷노니’는 ‘밍⁷글-⁷노-오-니’로 분석되니까 ‘-오-’가 있지요? 이것을 주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명해 볼까요?

학생: 아하, ‘내’가 주어이고, ‘-오-’가 화자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네요. 그럼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교사: 그것은 관형사절 안의 서술어에 ‘-오/우’가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a)와 (2b)의 관형사절 안의 서술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생: (2a)에는 ‘-오-’가 나타나 있는데 (2b)에는 없습니다.

교사: 그렇지요. 그럼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는지, 피수식어가 관형사절 안에 나타났다면 어떤 문장 성분으로 나타났을 지를 생각하면서 답해 볼까요?

학생: (2a)처럼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관형사절 안에서 (㉠) (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오-’가 사용되었고, (2b)처럼 (㉡) (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았네요.

교사: 그래요. 바로 맞혔어요.

5. 다음은 “근대 초기 우리 소설의 문체 변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작품들이다. <보기>의 괄호 안 ㉠, ㉡에 해당하는 말을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경성학교 영어 교사 리형식은 오후 두 시 사 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려쓰이는 룩월 베타 씬을 흘니면서 안동 김 장로의 집으로 간다. 김 장로의 딸 선형(善馨)이가 명년 미국 류학을 가기 위하여 영어를 준비할 초로 리형식을 미일 한 시간식 가영 교사로 고빙하여 오날 오후 세 시부터 슈업을 시작하게 되었습이다. ... (중략) ... 덤심 후에는 아직 담비는 아니 먹엇 전마는 호고 손으로 입을 가리오고 입김을 후 너어 불어 본다. 그 입김이 손바닥에 반스되어 코로 들어가면 념식의 유무를 시험할 슈 잇습이다.
 - 이광수, 『무정』(1917)

(나)
 兄님 -
 마춤내 告白할 날이 왔습니다.
 언제던지 兄씨서 直接으로나 或은 편지로 “무슨 변민이 잇거든 내게 다 말하라.” 하섯지만 저는 종내 못하섯서요 제 性質 가운데 별한 것이 잇서서 이 事件을 다른 사람의게 알게 하려면 식기의 불이 압셔서 니러나는 고로 마춤내 못하섯습니다.
 그럿치만 지금은 썸질거리고 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춤내 告白할 날이 왔습니다.
 - 김동인, 『마음이 여튼 자여』(1919)

(다)
 요사히 彼の 또 한 가지 苦痛은, 意識的이 아니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업는 것이다. 불상한 女子다, 自己의 不純으로 相對者 純潔을 더럽히는 罪惡의 代償으로라도, N을 사랑하여야 하겟 다는, 意識이나, 條件이 업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업는 것이, 彼에게는 一種의 苦痛인 同時에 悲哀이엇다. 藝術이나? 戀愛나? 彼에게 對하여는 이 두 가지를 全然히 否定할 수도 업고, 全然히 肯定할 수도 업다. 그 一을 取하고 그 一을 버릴 수도 업다. 여기에 彼の 씩-렌마가 잇는 것이다.
 - 염상섭, 『암야』(1922)

<보 기>

염상섭의 소설 『암야』에서 쓰이는 문장 종결 표현을 ‘이다’체 라고 한다면, 『무정』의 종결 표현에는 고전 소설에서 쓰였던 ‘(㉠)’체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정』에는 ‘-니다/-다’체 등 현대 국어의 문장 종결 표현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 근대 소설의 탄생을 가장 특징적으로 알리는 문체 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음이 여튼 자여』에 적시된 “무슨 변민이 잇거든 내게 다 말하라.”라는 명제는 이 문제를 잘 드러내 준다.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 특히 시시콜콜한 일상의 고민을 다 말하고자 하는, 근대의 내면이 만들어 낸 문체, 이른바 ‘내면 (㉡)’체의 탄생에 의해 우리 근대 소설사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작성 방법>

- ㉠은 (가)에서 찾아 쓸 것.
- ㉡은 (나)에서 찾아 쓸 것.

6. (가)를 보고 교사와 학생이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1) 나무꾼, 주먹질, 믿음, 넓이
 (2) 밤나무, 말소리, 손발
 (3) 되도록, 갖은, 다른

(나)
 교사: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생: 파생법과 합성법이 있어요.
 교사: 네, 맞아요. (1)은 파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생어, (2)는 합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새로운 단어는 대부분 파생법과 합성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학생: 선생님, 그런데 (3)은 파생어도 아닌 것 같고 합성어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교사: 맞아요. 드물긴 하지만 파생법, 합성법이 아닌 방식으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3)처럼 용언의 (㉠)이었던 것이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가 있어요. (3)의 예들은 용언의 (㉡)이었던 때와 새로운 단어가 된 후의 (㉢)이/가 바뀌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의미 변화가 있기도 해요.

7. 다음 작품에서 화자의 태도를 탐색하는 과정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보기>의 괄호 안 ㉠에는 해당하는 말을 쓰고, ㉡에는 해당하는 구절을 작품에서 찾아 쓰시오. [2점]

…(전략)…

㉠ 人間을 찌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바람도 허려 호고 들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줌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란 뉘 다드며 뉘 곳츠란 뉘 쓸려료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늘리 不足거니 來日리라 有餘하라
 이 피히 안즈 보고 저 피히 거러 보니
 煩勞호 ㅁ음의 ㅁ릴 일리 아조 업다
 설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아
 다만 호 靑藜杖이 다 피되어 가노미라

㉡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불니며 툃이며 허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을 비아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츠락
 을프락 프람호락 노혜로 노거니
 天地도 넘고 넘고 日月도 한가하다
 羲皇을 모을너니 니 적이야 괴로괴야
 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
 岳陽樓上의 李太白이 사라오다
 浩蕩 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亦君恩이쌌다

- 송순, 「면양정가(俛仰亭歌)」

<보 기>

과정	내용
작품의 내적 문맥에 기반한 태도 탐색	‘굽어보고[俛] 우러러보는[仰] 정자[亭]’라는 ‘면양정’의 뜻과 ㉠에서 확인되는 화자의 상황으로 보아, 이 작품에서는 정자와 그 근처에서 자연의 풍광을 완상하며 살아가는 (㉠)적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작품의 외적 맥락에 기반한 태도 탐색	그런데 ㉡장면 및 현실 세계의 이념적 윤리에 대한 의식을 보여 주는 ‘(㉡)’(이)라는 구절을 보면, 앞서 파악한 화자의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작품의 외적 맥락에 기반한 태도 탐색	면양정에 대한 송순의 다른 글에 있는 ‘俛有地 仰有天 亭其中[굽어보니 땅이요 우러러보니 하늘이라, 그중에 정자 있어]’라는 구절과, 송순이 출사(出仕)를 했던 사대부라는 사실에서 화자가 자연 친화를 넘어서는 (㉠)적 삶과 현실의 이념적 윤리를 동시에 지향하는 이유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음.
탐색 결과	이 작품에서 사대부인 화자는 스스로 자연에 조화되기를 바라는 한편, 천지의 섭리와 인간의 윤리가 조화되는 세상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음.

8. 다음을 읽고 <보기>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표현을 다음에서 찾아 쓴 후,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 [2점]

그날부터 낭주의 고은 양지 눈의 분명하고 맑은 소리 귀의 정녕하여 욕망이 난망이오 불스이 자시라. 무어슬 닐흔 듯 여취어광하여 인하여 용미 초쾌하고 괴식이 엄엄하거늘 그 부미우려하여 문 왈,
 “네 병근이 심상치 아니하니 무슨 소회 너저든 바로 닐으라.”
 선군 왈,
 “별노 업소오노 즈연 심기 불평호므로 그러호오니 부모는 괴럼 마오소서.”
 호고 서당으로 물너와 고요히 누어 낭주만 생각호고 만스 무심이러니 문득 낭지 압히 와 안즈며 위로 왈,
 “낭군이 날노 말미아마 저러듯 성병하여스니 첩의 마음이 미안호고 가세 호흔 빈한호미 근심되는 고로 첩의 화상과 금동즈 한 쌍을 가져와스오니 이 화상은 낭군 침실의 두어 밤이면 안고 즈고 낮지면 병풍의 거러 두시고 심회를 풀게 호소서.”
 호거늘 선군이 반겨 그 손을 잡고 말호고져 홀 즈음의 문득 간 디 업고 찌여 본즉 화상과 동지 것히 노혔거늘 선군이 괴이 너기며 금동즈는 상 우회 안치고 화상은 병풍의 거러 두고 쥬야 십이시로 상디호는지라. 각 도 각 읍 스품이 이 소문을 듯고 닐으되,
 “빅선군의 집의 괴이호 보비 있다.”
 호고 각각 치단을 갖초와 가지고 닳토와 구경호니 그러호므로 가세 점점 요부호는 선군은 일거월저의 생각호니 오직 낭지라. 가련타. 병입골수호여스니 뉘라셔 살너널고.
 이 적의 낭지 생각호미,
 “저 선군이 저갓치 심너호니 안연부동홀 길 업다.”
 호고 선군의게 현몽호여 왈,
 “낭군이 첩을 생각호여 성병하여스니 첩이 가장 감격호은지라. 낭군 덕 시너 미월이 가히 건줄소임을 감당홀 거시미 아직 방슈를 정호여 적막호 심회를 위로호소서.”
 호거늘 선군이 씨다르니 침상일몽이라.

- 「숙영낭자전」

<보 기>

고전 소설에서 서술자는 작품에서 형상화하는 세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인물의 말하기를 통해 사건 전개를 설명하기도 한다. 때로는 ㉠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관점 또는 평가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는 고전 소설이 향유된 방식을 고려할 때 향유자들이 서사 전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인물의 정서에 더욱 깊이 (㉡)하게 하는 효과를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9. 다음은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점검하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한 수업 자료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다)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유 2가지를 [A]에 주목하여 서술하시오. [4점]

(가)	
면대면 대화	온라인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언어를 사용함. • 동일한 시·공간에 있어야 함. • 준언어·비언어적 메시지를 직접 전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처럼 사용함. • 동일한 시·공간에 있지 않아도 됨. • 준언어·비언어적 메시지를 이모티콘 등의 기호로 간접 전달하지만 제한적임.

(나)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언어를 통로로 하여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화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의도대로 청자에게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 인간은 메시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화자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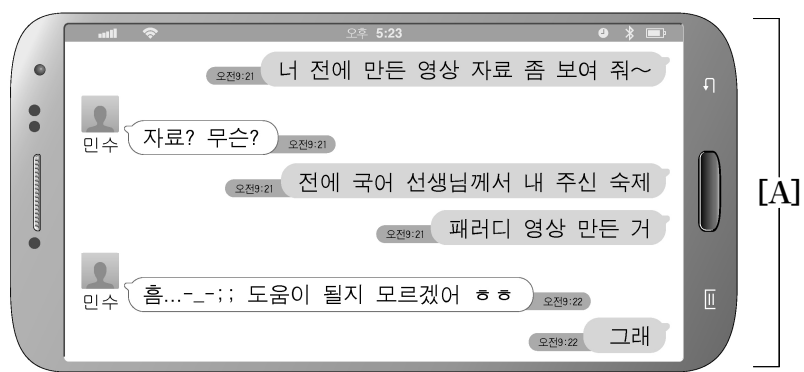
도연: 너 어제는 내가 부탁한 영상 자료를 보여 준다더니 왜 안 된다는 거야?

민수: 내가 언제 너한테 보여 준다고 말했어?

도연: 나랑 어제 온라인 대화할 때 보여 준다고 했잖아.

민수: 언제 그랬어? 보여 주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도연: 참 나, 어제 네가 보낸 거 확인시켜 줄까?



도연: 자, 봐. 이게 보여 주겠다는 뜻 아냐?

민수: 아니, 그건 자료를 주기 곤란하다는 뜻으로 보낸 건데.

10. (가)는 김 교사가 채택한 교과서의 쓰기 단원이고, (나)는 김 교사가 이를 재구성한 것이다. (나)의 재구성 방법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학습 목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며 글을 쓸 수 있다.

(가) 재구성 전

단원 전개	소단원 1	소단원 2	소단원 3
학습 목표	목적, 독자에 따른 쓰기 과정 점검 방법을 이해한다.	점검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문을 쓸 수 있다.	점검 방법을 활용하여 논설문을 쓸 수 있다.
학습 활동	1. 목적에 따른 점검 방법 이해하기 ↓ 2. 독자에 따른 점검 방법 이해하기 ↓ 3. 목적에 따른 점검 방법 적용하기 ↓ 4. 독자에 따른 점검 방법 적용하기	1. 계획하기 ↓ 2. 생성·조직하기 ↓ 3. 작성하기 ↓ 4. 고쳐 쓰기	(생략)

(나) 재구성 후

단원 전개	소단원 1	소단원 2	소단원 3
학습 목표	목적, 독자에 따른 쓰기 과정 점검 방법을 이해한다.	점검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문을 쓸 수 있다.	점검 방법을 활용하여 논설문을 쓸 수 있다.
학습 활동	1. A 필자의 점검 활동 (프로토콜) 분석하기 ↓ 2. B 필자의 점검 활동 (프로토콜) 분석하기 ↓ 3. 목적에 따른 점검 방법 정리하기 4. 독자에 따른 점검 방법 정리하기	1. 계획하기 ↓↑ 2. 생성·조직하기 ↓↑ 3. 작성하기 ↓↑ 4. 고쳐 쓰기	조정하기 (생략)

<작성 방법>

- (가)의 ‘소단원 1’ 학습 활동과 (나)의 ‘소단원 1’ 학습 활동의 차이를, 학습 활동의 전개 순서와 관련지어 서술할 것.
- 김 교사가 (가)의 ‘소단원 2’ 학습 활동을 (나)의 ‘소단원 2’ 학습 활동과 같이 재구성하면서 적용한 쓰기 과정의 원리를 쓰고, 그 원리를 설명할 것.

11. 다음은 종결 어미 '-니'와의 비교를 통해 연결 어미 '-(으)니'에서 일어난 음운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자료이다. (1)에서 '/-/첨가'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보다 '/-/탈락'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설명적으로는 타당성이 높다. 그 이유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4점]

(1) 연결 어미 '-(으)니'	(2) 종결 어미 '-니'
ㄱ. 먹으니, 잡으니, 달으니	ㄱ. 먹니?, 잡니?, 달니?
ㄴ. 가니, 오니, 주니	ㄴ. 가니?, 오니?, 주니?
ㄷ. 아니(←알-으니), 부니(←불-으니)	ㄷ. 아니?, 부니?

<작성 방법>

○ (1)에서 '/-/탈락'의 조건 환경에 대한 기술을 포함할 것.
○ 이유는 (2)와 비교하여 설명할 것.

12. 다음은 종결 어미 '-지'가 쓰인 문장에 대한 관찰 결과이다. '-지'가 쓰인 ㉠은 자연스럽고 ㉡은 비문법적이 되는 이유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4점]

상대에게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말하고 나서 하는 첫 발화로 ㉠“요건 몰랐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요건 몰랐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 내일 소풍 가는지 여부를 몰라서 물어보는 상황에서 ㉢“내일 소풍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는 문법적이지만 ㉣“내일 소풍 가는 거지, 안 가는 거지?”는 비문법적이다.

<작성 방법>

○ 이미 알고 있거나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 사실에 대해 말할 때 '-지'가 사용된다는 점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
○ ㉠은 ㉡과, ㉢은 ㉣과 대조하여 설명할 것.

13.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해석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누이야
가을산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날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믄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오던 것을
더러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더러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날이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옴을.
- 송수권, 「산문(山門)에 기대어」

(나)
1
㉠ 화안한 꽃밭 갈네 참.
눈이 부시어, 저것은 꽃핀 것가 꽃진 것가 여겼더니, 피는것
지는것을 같이한 그러한 꽃밭의 저것은 저승살이가 아닌것가
참. 실로 언짢달것가. 기쁘달것가.
거기 정신없이 앉았는 섬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았다해도 그 많은 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숨
소리를 나누고 있는 반짝이는 ㉡ 불바다와도 같은 저승 어디쯤
에 호젓이 밀린 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것가.

2
우리가 소시(少時)적에, 우리까지를 사랑한 남편 문씨 부인은,
그러나 사랑하는 아무도 없어 한낱의 꽃밭 속에 치마를 쓰고
㉢ 찬란한 목숨을 풀어헤쳤더라.
확실히 그때로부터였던가. 그 둘러썩던 비단치마를 새로 풀며
우리에게까지도 ㉣ 설레는 물결이라면
우리는 치마 안자락으로 코 훔쳐주던 때의 머언 향내 속으로
살달아 마음달아 젖는단것가.

*

똥단배 두었, 해동갑하여 그 참 흰나비 갈네.
- 박재삼, 「불바다에서」

<작성 방법>

○ ㉠과 ㉡이 (가), (나)의 시적 화자에게 지니는 공통된 의미를 설명할 것.
○ ㉡과 ㉣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을 서술할 것.

14. 다음을 읽고 (가)의 **헌 책**의 함축적 의미와 (나)에서 ‘헌’이 ‘김 직원’을 바라보는 태도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많지는 못한 장서(藏書)나마 현은 한가히 책장을 쳐다볼 때마다 감개무량하기도 하였다. 일목천고(一目千古)의 감을 느끼는 것이다. 새 책은 날마다 나온다. 또 새 책은 날마다 **헌 책**이 된다. 한때는 인류 사상의 최고봉인 듯이 그 앞에는 불법(佛法)도 성전(聖典)도 무색하던 것이 이제는 그 책의 뚜껑 빛보다도 내용이 앞서 퇴색해 버리고 말았다. 그 뒤에 오는 다른 새것, 또 그 뒤를 따른 다른 새것들, 책장 한 층에만도 사조는 두 시대, 세 시대가 가지런히 곱혀 있는 것이다.

‘지나가 버린 낡은 사조의 유물들! 희생된 것은 저 책들뿐인가? 저 저자들뿐인가? 저 책들과 저 저자들뿐이라면 인류는 이미 얼마나 복된 백성들이었으랴마는, 인류는 언제나 보다 나은 새 질서를 갈망해 헤매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새 사조가 지나갈 때마다 많으나 적으나, 또 그전 것을 위해서나 새것을 위해서나 반드시 희생자는 났다. 그 사조가 거대한 것이면 거대한 그만큼 넓은 발자취로 인류의 일부를 짓밟고 지나갔다. 생각하면 물질문명은 사상의 문명이기도 하다. 한 사상의 신속한 선전은 또 한 사상의 신속한 종국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전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이나 겪을지 말지 한 사상의 난리를 현대인은 일생 동안 얼마나 자주 겪어야 하는가. 청(淸)의 시인 이초(二樵)가 일신수생사(一身數生死)라 했음은, 정히 현대의 우리를 가리킴이라 하고, 현은 몇 번이나 책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 이태준, 『토끼 이야기』

(나)

그 후 한동안 김 직원은 현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현도 바쁘기도 했지만 더 김 직원에게 성의도 나지 않아 다시는 찾아가지도 못하였다.

탁치 문제는 조선 민족에게 정치적 시련으로 너무 심각한 것이었다. 오늘 ‘빈탁’ 시위가 있으면 내일 ‘삼상회담 지지’ 시위가 일어났다. 그만 군중은 충돌하고,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것을 미끼로 정권 싸움이 악랄해 갔다. 결국 해방 전에 있어 민족 수난의 십자가를 졌던 학병(學兵)들이, 요행 죽지 않고 살아온 그들 속에서, 이번에도 이 불행한 민족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말았다.

이런 우울한 하루였다. 현의 회관으로 김 직원이 나타났다. 오늘 시골로 떠난다는 것이었다. 점심이나 같이 자시러 나가자 하니 그는 전과 달리 굳게 사양하였고, 아래층까지 따라 내려 오는 것도 굳게 막았다. 전날 정리로 보아 작별만은 하려 들렀을 뿐, 현의 대접이나 인사는 긴치 않게 여기는 듯하였다.

“언제 서울 또 오시렵니까?”

“이런 서울 오고 싶지 않소이다. 시골 가서도 그 두문동 구석으로나 들어가겠소.”

하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분연히 층계를 내려가고 마는 것이었다. 현은 잠깐 멍청히 섰다가 바람도 쏘일 겸 옥상(屋上)으로 올라왔다. 미국 군의 짝이 물매미 떼처럼 서물거리는 사이에 김 직원의 흰 두루마기와 검은 갓은 그 영자 너무나 표표함이 있었다. 현은 문득 청조 말(淸朝末)의 학자 왕국유(王國維)의 생각이 났다. 그가 일본에 와서 명곡(明曲)에 대한 강연이 있을 때, 현도 들으러 간 일이 있는데, 그는 청나라식으로 도야지 꼬리 같은 편발(辮髮)을 그냥 드리우고 있었다. 일본 학생들은 킬킬 웃었으나, 그의 전조(前朝)에 대한 충의를 생각하고 나라 없는 현은 눈물이 날 지경으로 왕국유의 인격을 우러러보았다. 그 뒤에 들으니, 왕국유는 상해로 갔다가, 북경으로 갔다가, 아무리 헤매어도 자기가 그리는 청조(淸朝)의 그림자는 스러만 갈 뿐이므로, ‘綠水青山不曾改, 雨洗蒼苔石獸間(녹수청산부증개, 우세창태석수간)’을 읊조리고는 편발 그대로 곤명호(昆明湖)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생각하면, 청나라를 깨뜨린 것은 외적(外敵)이 아니라 저희 민족 저희 인민의 행복과 진리를 위한 혁명으로였다. 한 사람 군주(君主)에게 연연히 바치는 뜻갈도 가룩한 바 없지 않으나 왕국유가 그 정성, 그 목숨을 혁명을 위해 돌리었던들, 그것은 더 큰 인생의 뜻이요, 더 큰 진리의 존엄한 목숨일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일제 시대에 것처럼 구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내 부지해 온 상투 그대로, ‘대한’을 찾아 삼팔선을 모험해 한양성(漢陽城)에 올라왔다가 오늘, 이 세계사(世界史)의 대사조(大思潮) 속에 한 조각 티끌처럼 아득히 가라앉아 가는 김 직원의 표표한 뒷모양을 바라볼 때, 현은 왕국유의 애뜻한 최후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람이 아직 차나 어딘지 부드러운 벌써 봄바람이다. 현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회관으로 내려왔다. 친구들은 ‘프로에맹’과의 합동도 끝나고 이번엔 ‘전국문학자대회’ 준비로 바쁘고들 있었다.

- 이태준, 『해방 전후』

<작성 방법>

- ‘헌 책’과 의미적 조응을 이루는 사물 4가지를 (나)에서 찾아 쓸 것.
- ‘헌 책’의 함축적 의미는 (가)에 제시된 ‘사조’의 의미를 활용하여 서술할 것.
- ‘김 직원’에 대한 ‘헌’의 태도는 (나)에 나타난 표현을 활용하여 쓸 것.

<수고하셨습니다.>